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담당자	박동국 사무국장 / 010-8253-2515	E-mail	edu2jaemyung@gmail.com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교육대전환운동본부' 17개 시·도 발대식 개최

- 17일 충북본부 발대식에 이어 24일 전남본부 발대식 개최
- 설 앞두고 광주, 경기, 대구, 전북, 강원 지역 발대식 잇따라
- 17개 시·도에 이어 시군구 단위까지 출범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의 '교육대전환운동본부' 전남본부 발대식이 24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늘 전남본부 발대식은 지난 17일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열린 발대식에 이어 두 번째로 유기홍 교육대전환운동본부 위원장과 서동용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구신서, 유성수 전남본부 추진단대표, 전남지역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대전환운동본부는 풀뿌리 조직으로 각 지역에서 제안하는 교육 의제를 상향식으로 모아 정책을 개발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충북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하는 전남본부가 전남 지역 국민들이 제안하는 교육 정책들에 귀 기울여줄 것” 을 당부했다.

교육대전환운동 전남본부 구신서 대표는 “전남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교육대전환운동을 22개 시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성수 대표 또한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대전환에 동의하는 도민들을 조직하여 후보의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자” 며 전남본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학교와 마을이 소통 협력하며,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 다

짐했다.

오늘 전남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설을 앞두고 25일 오후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본부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26일 오후2시 경기본부(경기도당), 27일 오후5시 대구본부(대구시당), 28일 오후2시 전북본부(전북도당), 오후 3시 강원본부(강원도당)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교육대전환위원회 교육대전환운동본부 17개 시·도에서 시민과 시도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임해 교육대전환운동본부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추후에는 시·군·구 단위까지 운동본부를 확대해 전국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17개 시·도 교육대전환운동본부 추진단 대표>

▲서울: 노웅희 아이행복세상 상임위원장,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경기: 심항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인천: 김보규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인천대표,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세종: 가명현 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순열 세종시의회 교육위원, ▲대전: 전양구 전)전교조 대전시지부장,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대구 안현효 대구대 교수, 김희섭 수성구 의원 ▲광주: 정희곤 전)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나운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울산 서민택 전)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손근호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부산: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강원: 김홍영 춘천시민연대 고문, 김혁동 강원도의회 교육상임위원 ▲충북: 오황균 전)전교조 충북지부장, 정상교 충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충남: 이정로 전)충남교육연구소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전북: 정우식 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전남: 구신서 전)전남도교육청 정책연구소장,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경북: 이찬교사)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사장, 정세현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 ▲경남: 이상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 ▲제주: 채철성 전)제주 중앙교 교장,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첨부1]

교육대전환운동 전남본부 발대식 결의문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잠자는 교실, 정답 고르기 공부만을 부추기는 입시 제도,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OECD 꼴찌 수준의 청소년 행복 지수, 2년 연속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 0.84명 등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자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대전환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전환,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대전환,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민주 사회로의 대전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의 공동체로의 대전환, 기득권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의 대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시대적 도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교육대전환이다.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과감한 상상력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 투자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어온 관행은 극복되어야 한다.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윤택리에 따라 교육 문제를 회피해 왔던 잘못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각오로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을 버리고 모든 아이들이 가진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살려내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와 초중고, 대학과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배우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학교와 마을이 소통 협력하며,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더 많은 시민, 학부모, 교육자들과 함께 22개 시·군에 교육대전환 운동본부를 세우고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교육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 01. 24.

교육대전환 전남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첨부2]

